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Special Jeongseon

구름도 쉬어가는 청정 피서지 정선

글/이창호 기자 · 사진/김주형 기자

강원도 정선은 눈을 감고 돌아다녀도 아름다운 비경에 닿는다. 청정 자연과 하나되는 순간 '아'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짙푸른 숲과 강물이 빚어내는 비경을 바라보노라면 한여름 무더위는 간데없이 씻겨지고, 옥같이 맑고 얼음처럼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한여름 띄워달라는 남의 말이다. 이쁜 아니다. 레일바이크와 래프팅, 정선 5일장 등이 일상 탈출의 분위기를 한껏 돋워준다. 여름 휴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Green Nature

동강의 물빛은 여전히 짙은 초록이다. 동강이 본격 시작된다는 정선을 가수리에서부터 영월의 서강을 만나 남한강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첩첩이 가로막고 선 산을 뚫고 또 뚫며 '한국의 구이린(桂林)'이라는 동강의 절경을 보여준다. 첩첩의 산이 품은 동강을 즐기는 방법은 래프팅과 강을 굽어보는 트레킹, 그리고 강과 함께 달리는 드라이브다.

정선은 산 높고 골 깊은 고장이다. 낮은 곳도 해발 300~400m를 넘나들고, 산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예전에는 '정선의 하늘의 넓이는 열두 평'밖에 안 되었는데 요즘은 길을 만드느라 산언덕을 깎아내는 바람에 세 평 가량이 늘어나 '열다섯 평'이라고 말한다. 산과 산 사이 깊은 골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강 따라 길이 났고, 길옆엔 마을이 섰다.

동강과 조양강, 오대천과 골치천 등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짙푸른 숲과 시원한 계곡이 이어져 그야말로 청정 바캉스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시(原始)의 시정(詩情)을 느낄 수 있다.

때 묻지 않은 비경과 강변 정취를 두루 간직한 동강은 정선과 평창, 영월 땅을 적시며 영월 읍내에서 서강을 만나 남한강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51km를 산자락을 휘휘 돌고 또 돌아 굽이쳐 흐른다. 마치 뱀이 꼬리를 틀 듯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와 왕성한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깎아지른 듯한 단애는 그야말로 '한국의 구이린'이다.

동강을 즐기는 방법은 래프팅과 트레킹, 드라이브다. 이 중 풍광을 벗 삼아 강과 함께 달리는 드라이브는 정선 여행의 백미다. 정선읍에서 평창 방면 42번 국도를 타고 가다 광하고 직전에서 길을 벗어나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동강 관리사무소가 나온다. 동강이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까닭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강변 길로 접어들면 백두대간 고산준령에 비견할 만한 웅장한 풍모를 갖춘 백운산의 석회암 절벽과 짙은 초록 물빛을 머금은 동강이 정겹게 다가온다. 강은 산을 감싸 안고, 산은 또 그 강을 둘러 안는다.

산골 치고는 제법 규모가 큰 굴암리를 지나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가수리의 붉은 뽕대(바위로 이루어진 낭떠러지)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이곳을 지나면 가수리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오송정이 나오고, 정선초교 가수분교 운동장 끝자락에는 동강을 바라보며 700여 년을 버티고 선 느티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선사한다. 가수리는 수미마을과 북대, 가탄, 하미 등 4개 자연부락 주민들이 동강을

사이에 두고 웅기종기 터전을 일구며 사는 강 동네이다.

아스팔트 포장이었다가 좁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흙먼지 일으키는 비포장도 골고루 섞여 지루할 틈이 없고, 옥수수에 둘러싸인 외딴 농가와 간간이 피어 있는 야생화들은 눈을 즐겁게 한다. 추수가 끝난 뒤에 만들어져 이듬해 여름 장마철에 강물이 불어나면 자연스레 떠내려가는 쇠 다리가 동강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한다. 차창을 열면 스테레오처럼 양옆으로 들려오는 동강의 물소리가 청량감을 더한다.

계속 휘어져 나가던 길은 운치리를 지나 고성분교 앞의 고성 동강관리소에까지 달는다. 고성분교를 끼고 산길을 15분 정도 오르면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산성이 눈에 들어온다. 그 어느 산성에 오르더라도 주변 일대의 경관은 빼어나게 마련이지만 이곳에 서면 뱀처럼 구불구불한 곡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강의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파랗게 열린 하늘은 구름이 붓질을 해놓은 때문인지 마냥 경쾌했으며 물빛은 하늘빛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더러는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봐야 하듯이 때로는 곁에서보다는 멀리서 봐야 참 모습을 볼 수 있다. 동강 또한 다르지 않다.



너럭바위 앉으니 신선놀음 동강과 함께 소금강도 어느 계절에 가도 다 좋지만, 여름엔 녹음 짙은 숲과 전설 깃든 기암절벽들이 조화를 이뤄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 삼아 둘러보기에 더없이 좋고, 녹음에 파묻혀 더위를 잊을 수 있다.

정선 읍내에서 59번 국도를 타고 태백 방면으로 가다 424번 지방도로 갈아타면 흔히 ‘화암8경’이라 불리는 화암동굴, 용마소, 거북바위, 화암약수, 화표주가 도로 인근에 도열하고 있다. 산자락을 돌고 도는 곡선의 길은 에둘러가야만 알 수 있는 인생의 재미도 있다는 것을 귀뜸해준다.

소금강의 시작점인 화표주(華表柱)에서부터 물운대까지의 4km에 이르는 계곡은 흔히 ‘정선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린다. 어천을 따라 사모관대바위, 족두리바위, 삼형제바위, 돌두꺼비바위 등 기암절벽이 늘어서 있다. 산길을 달리다 보면 동양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기암괴석 사이를 수놓은 녹음의 물결을 감상하며 달리다 보면 소금강 절경의 백미로 꼽히는 물운대(沒雲臺)에 닿는다. 천상 선인들이 선학을 타고 내려와 놀았다는 이곳에선 구름조차 쉬어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물운대 주차장에서 오솔길을 따라 250m 정도 걸으면 너럭바위가 있는 정상이다. 벼랑 끝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구름조차 쉬어 갈 만큼 경치가 빼어나고 신선놀음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아찔한데, 바위와 절벽과의 경계엔 수령 300년이 넘는 소나무 한 그루가 외로이 서 있다. 노송 너머로 보이는 소금강 계곡의 풍광이 제법 아름답다. 소나무는 고사목이 된 지 오래지만 이곳을 들렀던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시인 황동규는 너럭바위에 앉아 ‘물운대행(沒雲臺行)’이라는 한 편의 시를 남겼다. “물운대는 꽃가루 하나가 강물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엿보이는 그런 고요한 절벽이었습니 다. 그 끝에서 저녁이 깊어가는 것도 잊고 앉아 있었습시다.”

물운대는 마을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는 경관도 일품이다. 물운대 절벽 아래에는 광활한 반석을 휘돌아 흐르는 청류가 있어 여름철에는 피서객이 끊이지 않는다. 청류 반석에 앉아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몸속 깊은 곳까지 서늘함이 전해온다. 자갈밭이 길게 펼쳐져 있어 먹을 감거나 산책하기에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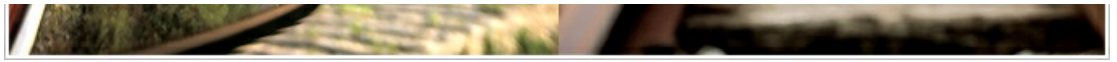
정선 땅엔 옥같이 맑고 얼음처럼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많다. 물운대 이외에도 광대곡, 숙암

계곡, 향굴계곡, 자개골 등 어디 가나 계곡물 소리가 들리고, 울울창창한 숲이 머금은 계곡에 들어가만 해도 소름이 돋고 금세 땀이 식는다. 특히 물운대 근처엔 화암8경 중 하나인 광대곡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약 4km 구간의 험준한 계곡 내에는 병풍바위, 선녀폭포, 골뱅이소, 바가지소, 영천폭포 등 태고의 신비를 지닌 폭포와 소가 연이어 비경을 자아내고 있다. 광대곡은 피서뿐만 아니라 ‘피인(避人)’까지 껴할 수 있는 곳이다.

태백산 줄기 산간 지역에 위치한 정선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는 여량리의 아우라지다. ‘아우라지’는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송천과 임계 중봉산에서 발원하는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진 물길로, 남한강 천 리 물길 따라 뗏목을 운반하던 뗏사공들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다. 또한 강을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아우라지 처녀’ 동상이 강물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아우라지 뗏사공아 배좁 건네주게/ 싸리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게.”

지금도 애잔한 아리랑 노랫가락이 들려오는 정선은 산 높고 물이 깊어 발길 닿는 곳마다 청량한 명승이다. 여름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 피서지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일까. 정선 땅을 한 번 밟아본 여행자라면 정선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간 완행열차. 어린 시절 가슴을 뛰게 했던 첫 기차여행의 아련한 추억, 학창시절 완행열차로 떠났던 수학여행의 기억, 부모 형제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고향역을 떠났던 아쉬움, 차창 밖으로 스쳐가던 아름다운 풍광, 5일장에 내다 팔 농작물을 머리에 이고 열차를 기다리던 아낙네의 무표정한 얼굴과 봇짐장수들의 걸쭉한 입담..... ‘완행열차’란 단어 속에는 서민들의 애환과 삶의 애잔한 내음이 묻어 있다.

정선선의 종착점이었던 구절리역에서 철길을 걷다 보니 10년 전 정선군 증산에서 구절리까지 이어지는 비둘기호 정선선을 타고 그 옛날 추억을 되새김질하던 일이 오버랩됐다. 구절리의 철길은

지난 2000년 말까지 가장 느리고, 가장 낡고, 가장 낙후한 열차가 가장 마지막까지 운행됐던 곳이다. 이듬해부터는 기관차 뒤에 달랑 한 칸, 많아야 두 칸의 객차를 매단 ‘꼬마 열차’가 이 구간을 달렸고, 산중 계곡의 오지 비경을 열차 안에서 차창으로 감상할 수 있는 운치 있는 코스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꼬마 열차도 아우라지 뗏목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2004년 3월 31일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05년 7월 폐선 철길로 레일바이크가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꼬마 열차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립다 그립다 옛 추억

구절리역을 출발해 아우라지역까지 편도로 운행되는 7.2km의 레일바이크 구간은 국내 최장 코스로 약 50분이 걸린다. 전체 구간이 대부분 평지나 약간의 내리막길로 이어져 있어 페달을 돌리는 데 힘이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송천을 끼고 철로 위를 달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레일바이크는 2인용과 4인용이 있는데, 주변 경치를 여유 있게 즐기려면 시속 15km 정도로 가는 것이 좋다.

구절리역을 출발하면 짧은 터널을 지나자마자 철교와 마주친다. 다리 아래로 맑디맑은 송천이 굽이친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을 따라 철로가 놓여 있어 주변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강물은 흐르고, 자전거는 달리고, 주변 풍경도 자전거 속도에 맞춰 흐르는 듯하다.

비스듬히 등받이에 기대 채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기분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송천을 따라 이어진 철길은 구부러진 한국 소나무들이 가로수처럼 나란히 달리고, 철길에 착 달라붙은 논밭이며 아직도 오막살이 같은 집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맑고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소리치는 탄성은 어느새 ‘카타르시스의 물결’로 밀려온다.

중간 지점의 휴게소에서 10분쯤 쉬어간다. 기념촬영도 하고 강바람도 쐬며 목을 축인다. 다시 출발, 제법 긴 터널에 들어서니 원색의 조명으로 색다른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것보다 냉장고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한여름 무더위 식히기에 그만이다. 아우라지가 내려다보이는 철교를 건너자 레일바이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우라지역이다. 레일바이크에서 내린 뒤 풍경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우라지 주변을 돌아보거나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된 여름치가 자갈에 산란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열차 카페 ‘어름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다시 기적 소리가 정겨운 풍경 열차 ‘아리아리호’를 타고 구절리역으로 돌아가는 길은 풍경의 복습이자 바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의 길이다. 출발하기 무섭게 열차 창에는 영사기를 돌린 듯 아우라지의 풍경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사방이 산과 물이다. 야트막한 집 뒤로 산들이 빙 둘러서 있는 것이 마치 고향 땅에 온 듯 포근해진다. 철길 옆으로 나 있는 옥수수 밭이며 오막살이 같은 작은 집과 허물어진 토담들이 오히려 정겨워 보인다.

국내 최초로 올해 선보인 ‘기차 펜션’도 레일바이크에 이어 구절리의 명물로 부상하고 있다. 기차를 개조했다는 특이한 탄생 배경도 흥미롭지만 그 자체로도 아늑하고 부족함 없는 펜션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기관차 1량과 객차 4량을 이용해 총 9실의 객실로 꾸몄다. 객실은 침대와 온돌 2종이며 큰 방(33㎡)과 작은 방(22㎡)이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화면뿐 아니라 PC의 모니터 역할까지 하는 평면TV, 정수기와 미니바, 욕실, 화장대, 에어컨까지 갖춘 숙소다. 또 송천 쪽의 6인용 목조 테이بل이 있는 널따란 데크에서는 송천 물줄기와 강 건너편 산자락이 그림처럼 다가온다.

기차 펜션과 이웃하고 있는 기차 카페 ‘여치의 꿈’은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자연의 향취를 한층 더해준다. 여치의 꿈은 내부만 개조한 이전의 ‘기차 카페’와는 달리 거대한 강철 다리를 제작해 붙이고, 객차 위에 객차를 얹었다. 수놓과 암놈이 다정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인데, 멀리서 볼수록 더욱 실물과 닮았다. 암놈(아래층)은 스파게티 전문점, 수놈(위층)은 카페이다.

시간 여유가 많다면 구절리 여행에 나서는 것도 좋다. 평행선을 달리는 철로 끝에는 해발 1322m나 되는 노추산이 버티고 있고, 그 뒤로 발왕산과 오대산 등 태백준령들이 잇닿는다. 기암괴석과 산위의 운무가 어우러져 절경인 노추산은 이성대와 오장폭포로 유명하다. 노추산 중턱의 대성사에서 능선을 따라 1km 가량 더 올라가면 기암절벽 위에 설총과 율곡 이이가 공부했다는 이성대가 자리 잡고 있다. 산 위 절벽에서 곧장 계곡으로 떨어져 내리는 물줄기가 이색적인 오장폭포는 구절리 인근에 위치해 있어 손쉽게 둘러볼 수 있다.

이름 그대로 굽이굽이 휘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노추산 계곡, 자계골 등 정선의 비경을 만날 수

있다.

여행 Tip

가는 법 영동고속도로~진부 나들목~59번 국도~42번 국도~아우라지~송천~구절리

레일바이크 이용 요금 2인승(1만8000원), 4인승(2만6000원)

기차펜션 이용 요금 큰 방(33㎡) 10만 원, 작은 방(22㎡) 7만 원

예약 문의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정선지사 033-563-8787, www.ktx21.com



일상과 무더위를 잠시라도 잊고
체질학습이 필요하다면 화암동굴이
제격이다. 이곳에서는 석회동굴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천연동굴과
수많은 광부들의 애환이 서린
금광의 흔적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
바깥세상에서는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감흥이 있다.

화암동굴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

화암동굴은 금광과 천연종유굴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테마 동굴로 일제시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던 금광인 천포광산이 있던 곳이다. 여름철에도 외투를 입어야 할 만큼 서늘한 동굴은 역사의 장,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 금의 세계, 대자연의 신비 등 5개의 테마에 41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 길이는 총 1803m다.

주차장에서 S자를 그리는 700m 길이의 가파른 언덕을 걸어서 갈 수 있지만 527m의 모노레일을 타면 한 폭의 풍경화를 관망할 수 있다. 12°C의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금광 갱도에 들어서면 먼저 ‘역사의 장’이 나타난다. 금광맥의 발견부터 채광 작업에 이르기까지 금 채굴 작업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해 놓아 광부의 삶을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다. 특히 붕괴 사고를 재연한 25m 길이의 모형 갱도는 관람객의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20m 높이의 ‘금맥따라 365’의 회전형 철계단은 오금을 저리게 할 정도로 아찔하다. 벽면을 수놓은 아름다운 석화가 황홀경을 선사하고, 실제 기어가는 듯한 공룡 상은 신기할 만큼 닮았다.

금광 개발 과정을 동화적으로 연출한 ‘동화의 나라’와 진짜 금괴와 금의 쓰임새 등을 테마로 한 ‘금의 세계’는 재미있게 꾸며져 있어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마지막 테마 장소인 ‘대자연의 신비’는 금맥을 찾아 굴진하던 중 발견된 천연종유굴로 영화나 책

에서만 접했던 동굴이 주는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높이 28m 규모의 웅장한 유석, 높이 8m·둘레 5m의 대형 석순, 커튼형 종유석, 석화와 곡석 등이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볼 만하다. 특히 1년에 평균 0.1~0.2mm씩 자라는 석순 앞에 서면 새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체를 둘러보는 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아라리촌

정선 산골의 옛 문화 그대로 재현

정선읍에 들어선 아라리촌은 정선 지역 600년 역사를 아우르는 곳이다.

굴피집, 저릅집, 귀틀집, 돌집 등 전통 가옥과 물레방아, 통방아, 디딜방아 등 농기구를 한데 모았다.

또한 숙박 체험을 통해 예스러운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조양강을 끼고 있는 아라리촌은 정선의 옛 주거 문
화를 재현해놓은 민속촌으로 정선 지방관이



와를 새언애홍은 민책은으로, 정선 지방 고유의 전통 민가들이 그 모습 그대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정선 지방의 독특한 가옥 형태인 돌집은 두께 2cm 정도의 돌기와로 지붕을 덮어 올린 집으로 주로 정선 지방 산기슭에 매장된 청석을 이용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한 저를집은 대마의 겹질을 벗기고 난 줄기를 짚 대신 이엉으로 이은 전통 가옥이다. 속이 빈 줄기가 단열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이외에도 옛 양반가의 전통 가옥인 기와집, 참나무 겹질인 굴피로 지붕을 덮은 굴피집, 2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쪼갠 널판으로 지붕을 이은 너와집, 그리고 나무로 지은 귀틀집 등을 볼 수 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 묵으면서 전통 주거 문화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

아라리촌에는 서낭당, 고인돌, 장승, 야생화 단지, 통방아와 물레방아 등 여러 볼거리가 있는데, 그중 연암 박지원의 한문소설 ‘양반전’을 소재로 한 다양한

동상들이 재미를 더해준다. 양반전의 배경이었던 정선에서 ‘양반전과 함께 떠나는 고전 여행’이라 할 수 있다.

누정 건축물인 육모정에 오르면 정선 읍내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특히 조양강과 계절 따라 변하는 조양산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아리랑의 한이 서려 있는 정선의 정선아리랑연구소 내에 설치된 ‘추억의 박물관’은 이색 체험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정선아리랑학교로 쓰이는 학교의 교실 2동과 복도를 개조해 지난 2005년 2월 25일 개관한 이 박물관은 민요 자료 1125점, 고문서·고서 1332점, 교육 자료 2620점, 근·현대사 자료 2632점, 서화 106점 등 모두 1만1200여점의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다.

맨 먼저 1829년 동해를 'Sea of Corea'로 기록한 지도, 동해를 'MER DE COREE'로 표기한 1748년 프랑스 지도 등 동해와 독도에 관련된 고문서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곳은 관람객을 추억 속으로 안내한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고단했던 1960~70년대의 추억이 손때 묻은 책과 공책,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성적표와 졸업장, 방학책과 전과, 왕자 슈퍼파스와 주판 등을 통해 코끝이 찡한 향수로 되살아난다. 또한 북한의 교과서가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전시돼 북한의 교육 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중가요·포크송 등 추억이 담긴 노래책, 몰래 훑쳐보며 킬킬대던 '선데이 서울' 등 대중잡지,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 나온 딱지,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아리랑 스카프, 근·현대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빠라(전단)' 등도 관람객의 발목을 잡는다.

일제강점기 태백권 석탄 조사 관련 문헌들과 함백광업소 개발 당시 문서·사진, 1960년대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임명장과 출장증, 통계연보 등은 폐광촌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자료로 눈길을 끈다.

추억의 박물관 입장료는 1000원이지만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와 방제리 모든 상점과 식당에서 2000원 이상 구매하고 받은 동그란 딱지로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물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문의 033-378-7856, 매주 월요일 휴관

Information Jeongseon

정선은 마쳐 오지의 대명사인 양 불리던 때도 있었지만 2000년 말 고한읍에 국내 최초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장한 이후 배어난 산수와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원 관광 휴양지로 탈바꿈했다.

<명산>

정선에는 백두대간의 함백산, 정선군의 젖줄과 같은 가리왕산, 가을 억새로 유명한 민둥산, '동강의 전망대'로 불리는 백운산 등 명산이 많다.

함백산 정선군 고한읍과 태백시 경계에 위치한 함백산은 해발 높이가 1572m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계방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하지만 등산하기엔 별로 힘들지 않다. 함백산 정상에 위치한 방송 송신탑까지 오르는 길이 생기면서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되었다.

함백산은 운무가 자욱하게 펼쳐진 풍경이 일품인데다 계절마다 한계령풀, 두루미꽃, 은방울꽃, 설종 복수초, 감자난 등 다양한 야생화가 피기 때문에 몇 번 방문했던 사람이라도 늘 새롭게 다가온다. 정상에는 소백산과 더불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된 주목 군락이 있다.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 년' 간다는 고산 수목이다.

노추산 노추산(魯鄒山·1322m)은 강원도 산골 중에서도 산골 깊숙이 자리한 산이다. 노추산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발왕산, 서쪽으로 가리왕산, 동쪽으로 석병산 등 1000m급 준봉들이 펼쳐진다. 노추산 산행 코스 중 레일바이크 출발지인 구절리에서 산판길을 따라 대성사~ 이성대~ 정상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가장 무난하다.

신라 때의 설총과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가 이 산에서 학문을 닦아 중국 노(魯)나라와 추(鄒)나라의 기풍을 이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름 지었다고 한다. 열목어가 노니는 자개골은 2km 밖에 안되지만 계곡 곳곳에 깊은 소와 요란한 물소리를 내는 작은 폭포 등 수많은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마음속까지 '초록물'이 드는, 아직은 때 묻지 않은 청정계곡이다.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가리왕산(加里旺山)은 옛날 중국 변방의 갈왕이 피신하였다 하여 '갈왕산'이라 명명되었다가 이후 가리왕산으로 불리어진 산이다. 해발 1561m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천연활엽수림과 함께 희귀목인 주목, 구상나무, 마가목 등이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계곡을 따라 숲 속으로 나 있는 산책로이다. 이 숲길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딱 찰 만큼 좁고 깊은 것이 특징이다.

회동계곡을 끼고 있는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은 산림 휴양과 산악마라톤, MTB 등 산악 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다. 주요 시설로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송림 우거진 야영장, 오토캠핑장, 야생화 단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다. 문의 033-562-5833

<둘러볼 곳>

정암사 신라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 불상을 모시지 않은 절로서 유명하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자리한 정암사(淨巖寺) 경내에는 적멸보궁(寂滅寶宮)과 함께 사리가 안치된 수마노탑(보물 제410호), 천연기념물 제73호인 열목어 서식지 등이 있다. 적멸궁에는 일반적인 전각과는 달리 부처님 자리에 연꽃을 수놓은 붉은 방석이 하나 놓였을 뿐이다. 적멸궁의 뒤로 돌계단이 놓여진 가파른 산길을 100m쯤 오르면 7층짜리 수마노탑(가리왕산)이 나타난다. 정선에 이르면 파란 파도가 대 바위에 서드하고 기묘한데 기이 부드

조탑(小塔圖塔)이 나타나네. 신화에 커다란 사당 풀사(寺堂) 궁녀(宮女)에서 두조이고 귀족을 배 그리 풀조
에 감화된 서해 용왕이 건넌 수마노로 탑을 쌓았다고 한다. 수마노란 붉은색, 검은색, 흰색이 곱게
어우러진 석영의 일종이다. 하지만 지금의 탑은 수마노가 아닌 석회암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아올
린 고려시대의 모전석탑(模塹石塔)이다. 전체 높이가 9m에 이르고 그 아래로는 불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례석을 두었다.

구미정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지는’ 물줄기다. 이 중 골지천은 삼척시 청옥산
과 동해시 두타산에서 시작되는 물줄기로, 기암 사이로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흘러간다. 골지천의 명
소는 한꺼번에 아홉가지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구미정(九美亭)이다. 조선시대 구미정사라는 학
숙이 있었다. 지금은 허름한 정자 하나만 남았지만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

화암약수 화암약수는 산화철탄산수로 사이다처럼 특 쏘는 첫 맛을 내며 위장병과 피부병, 눈병에
효험이 있는 영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일 용출량이 1660ℓ다.

약수를 마시기 전, 마음을 깨끗이 하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약수 근처에 가면 물 속에 구렁이가
비친다는 전설이 전한다. 약수터 옆에는 청룡과 황룡의 복된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쌓은 돌탑
들이 있다. 화암약수 안내소 033-560-2576

정선 5일장 정선 5일장은 ‘추억’을 판다. 옥수
수나 감자로 만든 음식들 냄새와 짙은, 낫쇠
쫓대 따위를 내다 파는 어르신들의 풍경은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의 아릿한 기억을 불
러온다. 장이 서는 날(2일과 7일 기준)은 서울
과 경기도 지역,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사람
들이 관광기차와 관광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온다.

먹을거리와 볼거리도 풍성하다. 국숫발을 굵
게 눌러 내려 탄력을 살려낸 콧등치기 국수
와 곤드레나물에 깨소금 등으로 버무린 곤드
레밥, 수수 부꾸미와 메밀 전병 등을 골목 식
당들과 노점에서 맛볼 수 있다. 산에서 나는
각종 산나물과 약초, 감자, 황기, 당귀, 더덕
등은 계절 특산물로 유명하다. 각종 공연도
이어진다. 장터에서는 마술 공연, 밴드 공연,
떡매치기 등 다양한 이벤트 공연을 볼 수 있
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정선아리랑 창극을
감상할 수 있다.

<관광 안내>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033-560-2361~3, www.ariatour.com

정선레일바이크 033-563-6050~3

화암동굴 033-560-2578

정선역 033-563-9265



[▲ top](#)